DAEWOONG 보도자료

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펙수프라잔, 중남미 4 개국 진출계약 체결

- 콜롬비아·에콰도르·페루·칠레 라이선스아웃 계약 체결... 중남미 계약규모만 1,700 억 원 돌파
- 2024 년까지 현지 허가 취득하고 6,300 억 원 규모 현지 시장 공략할 것

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'펙수프라잔(Fexuprazan)'이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4 개국에 추가 진출한다.

대웅제약(대표 전승호)은 콜롬비아 바이오파스(BIOPAS)사와 콜롬비아·에콰도르·페루·칠레에서의 펙수프라잔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24 일 밝혔다. 총 계약 규모는 한화 약 340 억원이다.

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현지 국가들에서 펙수프라잔 제품을 유통·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바이오파스사에 부여했다. 4 개 국가의 소화기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6,300 억 원(2019 년 아이큐비아 기준)에 달한다. 양사는 2024 년까지 계약 국가들에서 펙수프라잔의 현지 허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. 대웅제약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바이오파스사가 현지 임상 및 허가 취득 절차를 담당하고 비용을 부담한다.

대웅제약은 이미 계약을 맺은 브라질과 멕시코를 포함해 중남미 6 개국에 펙수프라잔을 진출시키게 됐다. 브라질(약 860 억 원)과 멕시코(약 570 억 원)을 포함해서 계약 규모만 1,770 억원에 이른다. 특히 중남미 인구의 약 70%에 해당하는 권역에 계열 내 최고 신약인 펙수프라잔을 공급함으로써 중남미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. 펙수프라잔의 전 세계 라이선스아웃 계약 금액은 지금까지 1 조 370 억원에 이른다.

펙수프라잔은 대웅제약이 자체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P-CAB(Potassium-Competitive Acid Blocker) 제제다. 현재 세계 위산분비억제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PPI 제제보다 신속하게 증상을 개선시키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됨을 임상을 통해 입증했다. 이외에도 투여 초기부터 주·야간에 관계없이 즉시 가슴쓰림 증상을 개선시켰고, 위식도역류질환의 비전형적 증상 중 하나인 기침 증상도 개선시켰다. 특히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비교군인 에소메프라졸(Esomeprazole) 대비 3 배 많은 환자들에게서 가슴쓰림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.

박현진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은 "북미 및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거점으로 하는 주요국가 대부분에 펙수프라잔을 진출시킴으로써 펙수프라잔의 글로벌 경쟁력은 이제 완전히 입증된 셈"이라며 "계열 내 최고 신약인 펙수프라잔을 전 세계에 공급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"고 말했다.

# # #